성균관대학교 제58대 총학생회
제2차 교학 정기회의 회의록

회의 일자	2026. 6. 4. (목)
회의 장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600주년기념관
참여자	제58대 총학생회 학사정책국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학생지원팀, 교무팀, 학생성공센터, 정보통신/소프트웨어융합/공과대학행정실

안건 1. 성적우수장학금 선발 기준 공유 및 안내 접근성 개선

총학생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자연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학교: 학생지원팀

총학생회: 성적우수장학금 선발 기준 및 공지 방식 개선에 관해 논의드리고자 함. 현재 성적우수장학금이 각 대학·학부·학과별 운영 방식에 따라 상이한 경로로 안내되고 있으며, 주로 각 대학·학부·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개별적으로 공지되고 있음. 또한 성적우수장학금 공지사항 안내 창구를 인지하지 못하는 점이 신청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성적우수장학금 신청 공지 방식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성적우수장학금은 대학·학과별로 선발 기준 및 수혜 조건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준을 한데 모아 비교·점검함으로써 수혜 조건을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할 필요성이 있음. 개별적으로 공지되는 각 대학·학부·학과별 성적우수장학금 안내를 하나의 통합 공지로 정리하고, 기존 각 대학·학부·학과별 공지와 함께 추가적으로 게시하여 학생들이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드림.

또한, 기타 질의사항으로 성적우수장학금 신청 의무 폐지 및 일괄 자동 선발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드림.

학교: 성적우수장학금 신청 시 별도로 필요한 서식 및 장학금 추천서, 학과에서 별도 요청 서류들이 있어서 신청 의무 폐지는 어려움. 현재는 자동 선발 방식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

현재 통합 공지는 선발 기준 자체를 전체 공지사항에 다 담아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의 대학·학부·학과 홈페이지 공지사

항에도 업로드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GLS > 장학영역 > 장학금보기 > 장학금 모아보기’ 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방식으로 통합 운영할 것을 권장할 예정임.

총학생회: 성적우수장학금 관련 공지사항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될 때에 맞추어 총학생회 소통창구를 통해 장학금 관련 공지사항이 게시되었음을 함께 홍보하는 방식을 제안드림.

학교: 좋음. 함께 업로드 시 홍보 효과가 더욱 높을 듯함.

최종 협의안

- ❍ 성적우수장학금 신청 시기를 고려하여 학생지원팀에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성적우수장학금 통합 공지 게시
- ❍ 총학생회에서는 총학생회 소통창구를 통해 관련 안내 게시하여 홍보
- ❍ 학생지원팀에서 성적우수장학금 자동 신청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권고 예정

논의 안건 2. 자유전공계열 관련 전공T/O 대응

총학생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자연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학교: 교무팀, 정보통신/소프트웨어융합/공과대학행정실

총학생회: 자유전공계열 관련 전공T/O 대응 및 중장기 운영 방향에 관해 논의드리고자 함. 2026학년도부터 자유전공계열 신입생의 학과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전자전기공학부,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등 특정 학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함. 제2차 교학 정기회의 설문조사로 질의한 결과 해당 전공의 학생들이 전공T/O 부족으로 인해 수강하고자 하는 전공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전자전기공학부의 경우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과목이 추가로 개설되는 등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부 3·4학년 대상 전공과목이 미개설 또는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접수됨. 전자전기공학부,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전공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반제 또는 학과 단위로 운영되는 학과의 경우 새로 학과진입한 자유전공계열 학생들이 기존 학생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확인하였음.

현재와 같은 자유전공계열 학생들의 학과진입 선호도가 유지될 경우, 향후 학년별 누적 인원 증가에 따라 특정 학과의 전공과목 수강 여건, 강의 수용 인원, 교육 환경 등 전반적인 학사 운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전자전기공학부의 경우 현재와 같은 선호도가 유지될 경우 향후 약 300명에 달하는 추가 인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사전에 진행되는 학과진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학과에 진입한 자유전공계열 학생들이 추후 수강하게 될 2학년 전공과목의 충분한 T/O 확대를 요청드리며 동시에 원전공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폭넓은 진로 선택을 위하여 고학년 대상 전공과목 또한 확충될 필요가 있음을 전달드리고자 함. 더불어 한 명의 교강사가 감당할 수 있는 강의 규모 및 전공과목 T/O에는 현실적인 한

계가 존재함. 단순히 기존 강의의 수강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만으로는 교육의 질 저하, 교강사의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가한 전공 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임교원 확충을 제안드림.

학교: 자유전공계열의 학과진입 시 특정 학과로의 쏠림현상은 국내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민거리임. 또한 현재는 전자전기공학부로 수요가 몰리고 있으나, 향후에는 어떤 학과로 쏠림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움. 대학 차원에서도 특정 학과로의 쏠림현상이 다시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전자전기공학부의 경우 쏠림현상이 가장 심각하나, 2026학년도에는 자유전공계열 학생들이 2학년으로만 진입하였고 3학년은 아직 진입 전이기 때문에 고학년 대상 추가 전공과목 개설 필요성 및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였음. 2학년 대상 전공과목의 경우 분반 증설 및 T/O 확대 등을 통해 자유전공계열 학생들이 수업을 수강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기초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음. 학교 측에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과목의 경우에도 인원 T/O 증설을 통해 대응한 바 있음.

분반 개설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나, 2026학년도 2학기뿐만 아니라 2027학년도 2학년 학과진입 및 3학년 진학 시의 전공과목, 반제과목, 실험과목 T/O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 중임.

전공T/O 확보 시 교원 수급 및 강의실 확보 문제 또한 함께 발생함. 강의실의 경우 학교 본부와 논의를 통해 타 단과대학의 빈 강의실 활용에 대한 우선권을 논의 중임. 교원의 경우, 학교 입장에서 채용 이후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수업 및 연구를 지원해야 하므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님. 다만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기존 전임교원이 담당하거나, 비전임교원 공채를 통해 우수한 교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작년에 자유전공계열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올해 처음으로 자유전공계열 학생들의 학과진입이 진행된 만큼, 수요 대응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대응방식의 보완을 진행할 예정임.

총학생회: 전기전자공학부의 경우 3·4학년 대상 강의가 개설되지 않았으며, 전공과목 또한 모두 개설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음.

학교: 2학기 개설 과목의 경우 교강사가 수업계획서를 게시하여야 학생들에게 조회되므로, 아직 수업계획서가 게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과목이 있을 수 있음. 또한 고학년 미개설 및 축소에 대한 예시로 제시한 일부 과목은 전자전기공학부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이 아니며, 해당 과목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과에 요청 시 개설될 가능성이 있음. 다만 개설되지 않은 과목들이 단지 자유전공계열 학생들의 영향으로 미개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연구년 등 다른 변수가 존재할 수 있음. 실제 미개설 사유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교과목 또한 트렌드 및 학생 수요에 맞게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개설하기도 함.

2026학년도에는 자유전공계열 학생들이 2학년으로 학과진입하였기 때문에 3·4학년 대상 전공과목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 다만 2027학년도 수업 편성 시에는 증가한 인원을 고려하여 3학년 이상 고학년 대상 전공과목, 실험·실습과목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실험·실습과목의 경우 분반, 공간, 예산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어, 학장 차원에서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본부에 전달하고 있음.

학교 본부에서 1년간 총 증설할 수 있는 강좌 수에는 총량이 정해져 있으며, 그중 몇 과목을 증설할지는 각 학과의 요청을 받아 결정됨. 전자전기공학부의 경우 올해 추가적으로 8과목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8과목이 증설됨. 자유전공계열 학생들의 학과진입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 및 재학생 수 증가 등에 대해서도 본부에서 강좌 증설 총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강의실의 경우 E센터가 건설되며 사용 가능한 강의실이 많이 늘어남. 또한 현재 공사 중인 E센터 일부 강의실의 경우 기존에는 소형 강의실 1개와 대형 강의실 1개로 신축하려 하였으나, 소형 강의실 3개로 변경하여 더 많은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음.

자유전공계열로 학과진입한 학생들이 기존 학생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함. 이는 자유전공계열 학생뿐만 아니라 편입생 등의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임. 학과 차원에서 행사를 마

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학생 차원에서도 동아리 등의 활동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총학생회: 실제 전자전기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을 때, 예년에 비해 고학년 대상 전공과목이 부족하여 3학년 대상 과목을 수강신청하거나 전공과목을 적게 듣고 교양과목을 많이 수강하고 있다는 현황을 전달하고자 하였음. 전임교원 확충이 어려운 점 또한 인지하고 있음. 그러나 2학년에 많은 인원이 쏠린 상태이며, 향후에도 이 정도 인원이 계속 누적될 경우 3·4학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임.

학교: 고학년 강의 개설 현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또한 함께 전달할 계획임.

총학생회: 인터뷰와 제2차 교학 정기회의 설문조사에서 개설되지 않았다고 의견이 접수된 과목 중 일부는 기존에 1학기에 개설되었지만 올해에는 2학기에 개설됨을 확인하였음. 그러나 해당 과목을 4학년 1학기에 수강하고자 하였으나 2학기에 개설될 경우, 취업 시 지원 시기와 겹쳐 2학기 수강 예정 과목이 수강 내역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2027학년도에는 현재 2학년으로 학과진입한 자유전공계열 학생들이 3학년으로 진입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되고 있는지 질의드림.

학교: 다음 학기 강의 개설은 연말에 진행될 예정임.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학장 및 학부장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2027학년도에 대한 논의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 다만 구체적인 교과목 개설 및 분반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 그러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분명 이루어질 예정이며, 문제 발생 시 학과 운영에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조치할 예정임.

최종 협의안

- ❍ 2027학년도 3학년 예정 인원을 고려한 교과목 개설 및 분반 운영을 통해 전공과목 수요에 대응하고, 예상되는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조치 예정
- ❍ 학과진입 시 쏠림현상등 전공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전임교원 채용 진행
- ❍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과진입 인원의 누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공과목 개설 및 전공T/O 확보를 비롯하여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해 노력을 지속할 것임

논의 안건 3. 비교과 챌린지 장학금 운영 방식 개편

총학생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자연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학교: 학생지원팀, 학생성공센터

총학생회: 비교과 챌린지 장학금이 2023년 신설되어 학생들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해왔으나,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대규모 설문조사 ASKk:U, 제2차 교학 정기회의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과 챌린지 장학금 제도의 존재, 신청 방식, 수혜 기준 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확인하였음.

이에 비교과 챌린지 장학금의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비교과는 진로 탐색, 실무 역량 강화, 융합적 사고 함양 등 학생 역량 개발 측면에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장학금 운영 및 홍보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비교과 챌린지 장학금의 형태는 유지하되, 아래와 같이 비교과 관련 장학금을 세분화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드림.

***비교과 챌린지 장학금 관련 총학생회 제안안**

1)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 시간 기반 장학금(기존 비교과 챌린지 장학금)
- ❍ 2024년도 비교과 챌린지 장학금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

2) 비교과 프로그램 후기 작성 장학금
- ❍ 개별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고 이를 유형에 따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 이때 후기 작성 시 추후 장학금으로 환급이 가능한 일정 포인트를 지급함

3) 공모전 및 자격증 취득 성과 기반 장학금
○ 공모전 및 자격증 취득 성과를 기반으로 포인트제 장학금 운영

4) 상기 비교과 관련 프로그램 홍보 강화
○ 총학생회 소통창구를 통해 학기당 2회 이상의 홍보 게시물 업로드
○ 챌린지스퀘어 등 학생들이 확인하기 용이한 곳에 상시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을 추가

학교: 작년 총학생회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마일리지 장학금에 대한 의견을 질의드림.

총학생회: 특정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포인트를 차등으로 매기기 위해 사실상의 등급을 나누는 부분에서 마일리지 장학금에 대해 부정적임. 반면 비교과 챌린지 장학금은 공정성의 측면과 동기부여의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비교과 챌린지 장학금은 유지하되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을 제안드림.

챌린지스퀘어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할 때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한정적이기에, 후기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후기 작성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였음. 제안드린 세 가지의 장학금은 별개의 장학금으로, 비교과 챌린지 장학금 비중을 줄이고 남는 장학금으로 두 가지의 장학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드림.

학교: 학생성공센터의 비교과 운영 방식은 학부와 대학원에서 차이가 있음. 대학원생의 경우 진로 및 연구 방향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최신 트렌드 프로그램, AI 활용 등 다양한 특강을 수강하는 방식이 적합할 수 있음.

학부생들은 아직 진로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학부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은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되며, 학생이 필요한 과정을 선택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 가는 것을 목표로 함. 따라서 비교과 참여 횟수나 시간만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현재 학부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기조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총학생회에서 제안한 방향은 학부보다는 대학원 비교과 운영 방식에 더 가까워 보임.

또한 기존 공모전 및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비교과 참여 경험에 대한 평가와 장학금 및 활동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총학생회에서 제안한 장학금 방안은 기존 제도와 일부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함. 학생성공센터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후기를 수합하고 우수 후기 작성자에게 기프티콘 등을 지급한 바 있으며, 수합한 후기를 챌린지스퀘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임. 다만 후기 작성에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정성 평가와 선발 기준 마련이 필요하여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수 시간만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장기 프로그램과 단기 특강은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챌린지스퀘어에 등록되지 않은 인턴십이나 외부 활동은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더라도 이수 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개인의 스펙 축적에 장학금을 지급하기보다, 본인의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지표로 삼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음.

총학생회: 후기 작성은 이후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을 위한 정보 제공의 성격이 강하므로, 본인의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이에 후기 작성 장학금 방안을 제안드렸으며, 학생성공센터 차원에서도 관련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질의드림.

학교: 비교과 프로그램 후기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이 다음 학기에도 반복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학생성공가이드 조회 페이지의 역할은 교과목에서 학수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비교과 프로그램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임.

총학생회: 학생성공가이드 조회 페이지에서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이 목록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개별 프로그램 클릭 시 간단한 정보만 확인되는 상황임. 이에 학생성공가이드에 대한 간략한 설명, 학수번호와 같은 관리 기능과 함께 프로그램 설명 및 후기 기능이 추가되면 좋을 것으로 보임. 또한 학부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을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학교의 고정적인 기조인지 질의드림.

학교: 기존에는 학생성공센터도 다른 센터와 같이 대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에 가까웠으나, 전체 비교과 프로그램을 관장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학생들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활용을 돕는 방향으로 센터의 역할을 재정의하게 되었음.

총학생회: 학생성공센터가 추구하는 운영 방향성을 이해했음. 그러나 학생들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여전히 낮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 비교과 관련 장학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함.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체감 가능한 혜택이 필요하므로, 기존 비교과 챌린지 장학금은 유지될 필요가 있음. 후기 작성 장학금과 공모전 및 자격증 취득 성과 기반 장학금은 지급 기준이 모호할 수 있기에 포인트 일괄 지급 여부와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다만 비교과 프로그램 접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해당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열린 관점에서 검토할 경우, 학생들이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학교: 학생성공센터에서도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작년 9월부터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과를 설명하고 안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FYE세미나에 비교과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도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진행 중임.

총학생회: 공모전 및 자격증 취득 성과 기반 장학금 관련 의견에 대해 질의드림.

학교: 공모전의 경우 수상 시 이미 해당 공모전에서 상금 또는 장학금 형식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중복 수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자격증 취득 성과를 비교과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교외 공모전 수상 실적 역시 3품인증제 등 기존 제도와 중복될 수 있음. 현재 외부 공모전, AI 관련 활동 등은 3품인증 과정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공모전 및 자격증 취득 성과를 별도의 장학금 지급 기준으로 삼을 경우, 기존 인정 체계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기준 설정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총학생회: 3품인증제는 졸업 요건 충족을 위한 제도인 반면, 장학금은 비교과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함. 학생 입장에서도 이를 중복 혜택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별개의 제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학교: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 및 학생성공 e-포트폴리오 공모전과 중복될 가능성 또한 있음. 공모전 및 자격증 취득 성과 기반 장학금을 별도로 운영할 경우, 기존 공모전에서 이미 평가되는 대내외 활동과 중복될 수 있음. 또한 비교과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일부 학생들이 여러 장학금을 반복적으로 수혜할 가능성이 있음.

총학생회: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접근성 향상과 참여 동기부여를 위해, 구체적인 운영 형태를 떠나 장학금 지급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드림.

학교: 매우 긍정적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장학금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만 학생 개인의 성과에 장학금을 지급하기보다는, 본인의 경험을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확산하는 활동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함. 또한 특강, 참여, 실습이 결합된 장기 활동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최종 협의안

○ 후기 작성 장학금 운영 방식 및 새로운 비교과 장학금 형식에 대해 양측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검토 진행 및 추후 재논의 예정

논의 안건 4. 비교과 프로그램 다양화

총학생회: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장, 인문사회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자연과학캠퍼스 학사정책국장

학교: 학생성공센터

총학생회: 비교과 프로그램 다양화에 관해 논의드리고자 함. 현재 챌린지스퀘어에서 확인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멘토링, 튜터링, 특강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프로그램 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특히 대학원생을 대상으로는 Notion, Claude, AI 툴 등 최근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이 다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학부생 대상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임. 학부생 역시 교과 학습만으로 다양한 AI 툴을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부생 대상 AI 툴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드림.

여러 전공의 학생들이 교류하며 융합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공모전 및 프로젝트 확대를 제안드림. 현재 융합기초프로젝트, S-Global Challenger 등 융합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장기성 프로그램에 해당함. 장기 프로그램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는 만큼, 단기성 공모전 및 프로젝트를 통해 융합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음.

더불어 체험형 비교과 프로그램 확대도 제안드림. 체험형 프로그램은 교외에서도 유사한 경험이 가능할 수 있으나, 학교 내에서 운영될 경우 이동 및 비용 측면에서 학생들이 보다 가볍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학생들이 학교 생활 중 휴식과 재충전의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림.

학교: AI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성공센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음. 또한 학부생 대상으로는 DS 관련 필수교양도 개설되고 있음. 관련 프로그램 현황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음.

체험형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원을 대상으로는 힐링 프로그램, 심리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대학원 대상 사업과 학부 대상 사업은 성격이 다르며, 학부 비교과는 학생성공역량 향상을 기준으로 개설되는 부분이 있음. 따라서 일회성 체험 프로그램도 예산 편성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학부와 대학원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에는 차이가 있음.

학생성공센터에서도 과거에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가 있었으나, 작년 9월경 센터의 방향성을 정립하면서 컨설팅 단계에 맞춘 중장기적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방향을 조정하였음. 이에 따라 일회성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프로그램보다는, 학생들의 성장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함.

AI 툴 교육과 같은 일회성 특강의 경우, 유튜브나 교과목을 통해서도 접근 가능한 내용으로 판단될 수 있어 대학혁신사업에서 승인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국고 사업의 성격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단순 특강보다는 참여, 융합, 성과 공유 등이 결합된 프로그램이 더 적합할 수 있음.

총학생회: 말씀하신 AI 교육 등이 챌린지스퀘어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맞는지 질의드림.

학교: AICOSS 같은 경우 학생들이 참여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이 따로 있음. 다른 혁신 공유 대학들과 함께 진행하는 교육임. HUSS 같은 경우는 챌린지스퀘어에도 개설이 되어 있음.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관심도가 높은 학생들은 관련 프로그램을 자기주도적으로 찾아 참여하고 있음. 다만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학생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총학생회: 학우들은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자발적으로 찾아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비교과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학우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함. 또한 KINGO-M 등으로 많은 정보가 발송되고 있으나, 제목만 확인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정보 정리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최종 협의안

- ❍ 학생성공센터는 현재와 같이 학생성공 게이트웨이로서 기능하며, 컨설팅 중심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함
- ❍ AI 툴 활용 교육 등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비교과 프로그램은 각 부서의 전문성과 운영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설·확대될 수 있도록 장려함
- ❍ 학생성공센터는 필요 시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학생 수요 공유, 프로그램 연계, 홍보 지원 등을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 다양화에 기여함